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⑤	3	③	4	②	5	①
6	②	7	④	8	②	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③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③	19	③	20	⑤
21	④	22	⑤	23	②	24	②	25	①
26	⑤	27	②	28	③	29	⑤	30	⑤
31	③	32	②	33	①	34	①	35	②
36	④	37	⑤	38	①	39	③	40	⑤
41	⑤	42	②	43	⑤	44	③	45	⑤

[화법]

1. [출제의도] 강연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강연자는 강연 초반에 청중이 주사를 맞아본 경험과 주사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질문하며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하기

'학생 2'는 강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강연 내용 외에 궁금한 내용을 묻고 있으며, '학생 3'은 강연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강연 내용 외에 궁금한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학생 2'와 '학생 3'이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며 듣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주사 맞기 전에 유의할 점에 대해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주사의 종류에 따라 약물의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약물의 특성에 따라 주사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경험을, '학생 2'는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른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가)는 피하조직, (나)는 근육, (다)는 혈관을 나타낸다. 5문단의 '피하 주사의 경우에는 피하조직의 손상을 막고 ~ 문지르면 안 됩니다.'를 통해 주사를 맞은 후에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에 놓는 피하 주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특히 피하조직에 투여하면 ~ 근육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근육 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약물을 혈관에 ~ 빨리 나타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정맥 주사는 주사를 맞는 동안 ~ 주삿바늘을 사용합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 이해하기

'찬성 1'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넘는다고 합니다.'라고 밝히며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140조 원이라는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제시된 비용은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드는 비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찬성 1'은 '배아 상태의 유전자를 ~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유전자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반대 1'은 '첫째,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반대 1'은 '왜냐하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반대 1'은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며 인간의 유전자 중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관점을 비판하며, 기술의 비윤리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반대 2'는 '질병으로 인해 ~ 할 수 있나요?'라고 하며 제시된 자료의 비용이 모두 유전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면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B]의 '찬성 2'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B]의 '반대 1'은 적합한 사례 제시를 통한 반론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의 '반대 2'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2문단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던 나의 생각을 서술하는 문단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 동의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은 '혹시 인간 배아의 ~ 있었다면 어땠을까?'에서 나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병을 앓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본 과거의 경험과 토론에서 들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는 비행기에 사용된 베르누이 법칙과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발전시켰다는 유사점에 기초하여 비행기가 먼 거리 이동의 한계를 극복한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도 유전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임을 설명하는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직 ~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에서 토론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 생각을 하게 되었다.'에서 변화된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무조건 과학 기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잘못된 표현 고쳐쓰기

밑줄 친 ㉣이 포함된 문장은 '-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담은 어미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장의 서술어는 '~ 할 것이다'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 '가게 될 것이다'를 '가고 있다'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원거리는 먼 거리, 장거리라는 뜻이므로 밑줄 친 ㉠의 '먼 원거리'에는 멀다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을 '먼 거리'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맞춤법에 따르면 밑줄 친 ㉡의 '곰곰히'는 '곰곰이'로 고쳐 쓰는 것이 맞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토론을 방청한 후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과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한 초고이다. 밑줄 친 ㉢은 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밑줄 친 ㉤은 우리가 과학의 뒤를 좇기만 한다면 생기는 문제를 서술한 문장과 과학 기술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태도를 서술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이다. 하지만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어이므로 ㉤을 '그러므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에서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글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나)의 3문단에서 학교, 물티슈 제조 회사, 학생, 학생회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 1-㉮]는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이고, [자료 3]은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 자료이다. 이를 통해 물티슈 시장의 확대에 따라 물티슈에 포함되는 화학적 약액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에서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잘못 처리된 물티슈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에서 물티슈 성분의 비율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기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1-㉯]에서 82%의 학생이 물티슈에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에서 물티슈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환경까지 병들게 한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물티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자.'에서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환경의 파수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편리함이라는 선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법]

11.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시간 표현 탐구하기

ㄷ에서는 연결 어미 '-(으)면서'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 어미를 통해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은 '동생'이 책을 읽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가 나타나며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

하다. ② ㄴ은 '-어 있다'를 통해 '꽃'이 핀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ㄹ은 그는 빨간 티셔츠를 입는 중이라는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빨간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있다는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ㅁ에서는 '나'가 밥을 먹고 집을 나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있는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연결 어미 '-고서'를 통해 '나'가 밥을 먹는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동작상 이해하기

4문단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이나 '-(으)며셔', '-고서' 등과 같은 연결 어미를 통해 동작상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ㄹ의 '시름ᄒᆞ야 잇더니'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인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으나, ㅁ의 '닫고셔'에서는 연결 어미 '-고서'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ㄹ과 ㅁ에서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안자 잇거늘'은 '-아 잇다'가 활용된 형태를 통해, 앉은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ㄴ의 '쉬며셔'는 연결 어미 '-(으)며셔'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인 동작상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ㄷ의 '뿔아 잇더라'에서 '-아 잇다'는 진행상을 표현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아 있다'가 완료상을 표현하므로 적절하다. ④ ㄷ의 '뿔아 잇더라'와 달리 ㄹ의 '시름ᄒᆞ야 잇더니'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 '-아'가 'ᄒᆞ-' 뒤에서 '-야' 형태로 바뀌어 나타났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음운의 동화 비교하기

'작년[장년]'은 음운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칼날[칼랄]'은 음운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의 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① '겸눈[겸눈]'은 음운 'ㅂ'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만, '맨입[맨닙]'은 첨가가 나타나 ㉡의 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실내[실래]'는 음운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하고, '국물[궁물]'은 음운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어 ㉠의 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백마[뱅마]'는 음운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만, '잡히다[자피다]'는 음운의 축약이 나타나 ㉡의 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끓이다[끄리다]'는 음운의 탈락이 나타나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고, '물놀이[물로리]'는 음운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의 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이해하기

ㄱ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부사어로 2개이며, ㄷ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1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능동문은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목적어로 2개이므로 적절하다. ② ㄴ의 주동문은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목적어로 2개이므로 적절하다. ④ ㄴ의 주동문은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목적어로 2개이고, ㄹ의 주동문은 '학생들이 사진첩을 보았다.'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목적어로 2개이므로 적절하다. ⑤ ㄷ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1개이고, ㄹ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부사어, 목적어로 3개이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유형 탐구하기

ㄴ은 안긴문장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와 안은문장 '나는 사진을 떠올렸다.'에서 공통된 체언인 '사진'이 생략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은 안긴문장 '그가 시를 지었다.'에서 안은문장 '시는 감동적이었다.'와의 공통된 체언인 '시'를 생략하여 관형절 '그가 지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ㄷ은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라는 안긴문장이 생략된 성분 없이 체언 '소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ㄹ은 관형절인 '그 사람이 나를 속일'이 문장의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ㅁ은 안긴문장 '땀이 이마에 흘렀다.'와 안은문장 '나는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의 공통된 체언인 '땀'이 관형절 '이마에 흐르는'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인문]

[16 ~ 19] <출전> 이병덕,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로 본 기존의 의미지칭이론을 비판하며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한 프레게의 이론을 '샛별'과 '개밥바라기'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A]는 프레게가 설명한 지시체, 뜻, 관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A]의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를 통해 <보기>에서 비유적으로 제시된 ⓐ는 우리 가족들이 관찰한 대상이므로 '지시체'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A]의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를 통해 <보기>에서 비유적으로 제시된 ⓑ는 가족들이 하나의 렌즈에 맺힌 같은 형상의 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뜻'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A]의 '관념은 지시체에서 ~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를 통해 <보기>에서 비유적으로 제시된 ⓒ는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 '관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중심 개념 이해하기

5문단에서 '관념은 지시체에서 ~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를 통해 지시체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와 ㉯의 지시체는 ㉰라고 하였고, 4문단의 '프레게에 따르면 ~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에서 ㉮와 ㉯는 제시 방식이 달라 뜻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고유 이름'은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에서 ㉮와 ㉯가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된 고유 이름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한정 기술구란 ~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와 '프레게에 따르면 ~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를 통해 'a와 c의 교점'도 ㉰에 대한 제시 방식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사례와 3문단의 '프레게는 이처럼 동일한 지시체의 ~ 인식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에서 ㉱의 'a와 b의 교점'과 'o'의 뜻의 차이로 인해 두 문장의 인식적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에서 '유니콘'은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은 고유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1문단의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 지시체 자체이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20 ~ 25] <출전>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범죄인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이 언제 인도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서로 범죄인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범죄인인도조약의 개념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범죄인인도거절 사유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 인도대상범죄를 규정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범죄인인도조약은 ~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근대에 들어 각국은 ~ 범죄인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범죄인인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 처벌이 힘들다.'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 범죄인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범죄인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5문단에서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3문단에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는 범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한다고 하였고, X와 Y의 행위는 모두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며 A국은 청구국, B국은 피청구국이므로 적절하다. ② 제3국 국민인 X와 A국 국민인 Y는 모두 피청구국인 B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라고 하였고 6문단에서는 '정치범도 ~ 범죄인인도가 불허된다'라고 하였으며 Y의 행위는 그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므로 Y의 행위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X는 범죄인인도가 허가되었으므로 그의 행위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상대 국가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6문단에서 '정치범도 ~ 범죄인인도가 불허된다'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 법죄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범죄로 판단한다.'라고 하였고 B국 법원은 해

당 사건의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6문단에서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나)에서 피청구국은 B국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6문단에서 가해조항을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였는데 (나)에서 Y는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다 발각되었을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6문단에서 '정치범죄의 판단기준이 ~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Y의 행위는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다 발각된 행위로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제5조와 해당 조항에 대한 내용을 다룬 7문단에는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7문단에서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라고 하였고 제4조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이 들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8문단 전체에서 '특정성의 원칙'이라는 명칭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제6조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이 들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라고 하였고, 7문단에서는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와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이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의 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들에 대한 내용이 각각 제4조와 제5조에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7문단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이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고 8문단에서는 특정성의 원칙이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은 '설립'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성립'은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 기술]

[26~30] <출전> 이동녕 외, 「방사광과학입문」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전자총'은 '그 파장보다 짧은 ~ 광전효과를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n각형 ~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고, '저장링의 모서리 ~ 휨전자석을 설치하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휘도란 빛의 집중 ~ 높은 휘도 값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음(-)전하를 띤 ~ 힘의 원리를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특성 파악하기

3문단에서 방사광은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해 ~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였고, '전기적인 힘의 ~ 전자를 가속시킨다'고 하였다. 가속시키는 대상은 전자이지 전자기파인 방사광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실험 목적에 따라 ~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라고 하였고, '휘도가 수만 배 ~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방사광이란 빛의 ~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도식을 통해 글의 내용 파악하기

4문단을 보면 '그래서 삽입장치에서 ~ 더 밝은 방사광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전자총은 고유한 ~ 전자를 방출시킨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전자는 '높은 에너지를 ~ 저장링으로 보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저장링의 모서리 ~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고 '전자는 휨전자석을 ~ 힘을 받아 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이때 휨전자석과 ~ 궤도를 돌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빔라인은 ~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다른 대상과 비교하기

1문단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X선 빔라인에서는 ~ 특성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은 '생체 조직 등과 ~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5문단에서 ㉠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킨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은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5문단에서 ㉠은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은 '유리 렌즈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보기>에서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하였고, 1문단에서 '가시광선 영역'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의 문맥상 의미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31 ~ 34] <출전> 임방, 「옥소선」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윗글에는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도령이 자란을 찾아가는 동안의 힘겨운 상황을 누추한 외양을 통해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도령이 이별할 때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야기의 전개 도중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온 이후 절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기

㉣의 인물들이 갇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도령과 자란이 ㉢에서 ㉤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에서 관찰사의 임무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③ 도령이 ㉢에서 ㉣로 향한 것을 ㉢에 있던 친구들은 알지 못한 채 '요사한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도령이 ㉢에서 ㉣로 향한 것은 과거 ㉠에서 헤어진 자란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⑤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 만난 자란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양반인 도령은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기녀인 자란은 도령과 이별할 때 목메어 울며 도령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을 뿐이므로,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도령이 실성한 모습으로 자란을 찾아가는 것은 사랑의 감정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도령과 자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란의 베 짜기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 갔고, 자란이 옷가지와 패물을 팔거나 이웃과 잘 지내 환심을 산 결과이므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자란이 불효의 문제를 제기하자 도령이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자란은 과거 급제의 당위성으로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효와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입신양명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는 도령이 이별에 연연해하지 않을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염려하는 부친을 안심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란이 외진 산골에서 늙어 죽을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환기하며 도령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도령은 부친의 장점을 언급하며 부친의 성품을 칭송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자란은 도령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도령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도령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 도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35 ~ 37] <출전> 이육사, 「절정」 김남조, 「생명」

3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의 4연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서 추상적 시간의 계절인 겨울을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무지개로 구체화하며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나)의 2연에서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등을 통해 진실이라는 관념이 불에 타면서 온다고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생성과 소멸의 이중적 속성을 가진 생명과 진실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무릎 꿇을 곳을 찾고 있으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고 하여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연에서 계절을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연에서 서리가 땅바닥이나 풀포기 등의 위에 엉기어 성에처럼 된 모양을 의미하는 '서릿발'이라는 시어를 통해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연의 '북방'과 2연의 '고원'은 겨울의 이미지들과 맞물려 화자가 처한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1~3연에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인 겨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4연에서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4연에서 화자는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외면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시구는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일 뿐,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생명의 속성을 1연의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자연물인 '겨울보리'로 형상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는데 2연의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를 통해 불에 타는 고통을 동반한 '진실'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연에서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자연물인 '겨울 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생명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연에서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는 '잎'과 '충전 부싯돌'인 '줄기'를 가진 자연물인 겨울 나무를 통해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8 ~ 41] <출전> 문순태, 「철쭉제」

3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나'와 '판돌'의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에서 판돌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과, '자식된 도리로 ~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나'에서 '나'가 고향에 온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지 아버지는 ~ 죽을 때꺼정 껑껑댔지만'에서 판돌의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평생 고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이제는 백만 원만 ~ 올릴 수 있겄습니다만…….'에서 판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지는 족보 대신에 ~ 간직허고 있구만요.'에서 판돌은 족보를 갖는 대신에 판돌 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또 지 부자가 ~ 쥑였다고 허드만요.'에서 '나'의 아버지는 판돌 부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정말이지 마음이 ~ 허탈하게 물었다.'를 통해 '나'가 마주보기도 싫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재회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고, 이는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이므로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개죽음 당한 아버지 ~ 아니냐고 설득을 했다.'를 통해 '나'가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나'는 가족이 겪은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네가 고등 고시 ~ 검사가 되었다'는 것과 '나는 자신이 ~ 승낙을 받는데 진땀을 뺐다.'를 통해 '나'가 고등 고시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고, 한을 품게 한 대상인 판돌과의 재회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식된 도리로 ~ 꿈꾸듯 오랫동안 별러 온 고향'과 '수구초심으로 동경해 온 귀향'을 통해 '나'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나'가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한을 해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나'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얼굴에 도깨비 가죽 ~ 괴악망측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에서 판돌에 대한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판돌이가 그의 아버지 유골을 찾았기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것을 보면 판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각색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 파악하기

[A]의 '사실 그때 지는 ~ 고백을 허지고 말았어요.'에서 판돌은 나의 아버지가 거짓말로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바란 것이지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S#96에서도 효과음 처리된 판돌이 목소리를 통해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와 달리 S#95에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 왜 숨겼소?'를 통해 판돌이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어 박 검사의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고백하는 판돌의 말인 '그래서 그 어른을 데리고 ~ 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를 S#96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장면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의 '종이를 보이면서' 판돌이 신분을 밝히는 것을 S#96에서는 '종이를 인동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라는 지시문으로 구성하여 판돌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S#95에서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여 박 검사의 얼굴을 확대하여 연출함으로써 판돌을 바라보는 박 검사의 심리를 부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42 ~ 45] <출전> 정철, 「속미인곡」
임유후, 「목동문답가」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가)의 '내얼굴 이거동이 님괴얌즉 흔가마는'은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에게 사랑받음직 한가마는'으로, 작자가 조정을 떠나기 전의 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책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천상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조정을 의미하며, '엇디ᄒᆞ야 이별ᄒᆞ고'는 이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므로,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조물의 타시로다'에서 자신의 상황을 조물에 의한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상황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므로 적절하다. ④ '어엿븐 그림재 날조출 ᄲᅮᆫ이로다'에는 임금 곁을 떠나 홀로 지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출하리 싀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셔'에서 죽어서도 낙월이 되어 임금을 비추고 싶다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이해하기

'연교 초야의 소치기만 하나슨다'는 자연에 귀의하여 소 치기를 하는 목동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설의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소 먹이난 아해들아'라고 대화 대상인 목동을 부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인생 백년이 플끗에 이슬이라'에는 평생의 삶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풀끝의 이슬과 같다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대화 상대에게 인간영락을 아는지 물어보고 난 후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와 같이 대구를 통해 삶의 유한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간영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대구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때의 북받치는 감정을 '공산백골이 긔 아니 늣거오냐'와 같은 물음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에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간섭하는 [A]의 인물에게 자신의 근심은 던져두고 남의 분별을 하느냐는 물음을 통해 반문하고 있다. 이는 (나)에 나타난 [B]의 인물이 물음을 통해 상대방의 간섭에 대해 반문하여 대화에 긴장을 유지시켜 작자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이므로 ㉢에서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에서 보조적 인물은 '눌을보라 가시는고'라는 질문을 통해 작자의식이 담긴 주도적 인물의 '내 ᄉᆞ셜'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보조적 인물이 '구준비나 되쇼셔'라고 의견을 덧붙여 작자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독자적 인물인 목동이 '너해난 모라리라'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과시를 통해 인물들의 대화를 긴장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독자적 인물인 목동이 공명을 중시하는 대화 상대방의 의견에 '부귀는 부운이오 공명은 와각이라'라며 부귀공명은 소용없는 것이라며 반박하여 독자적 인물들의 주장을 대등하게 대립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비교하기

'내 ᄉᆞ셜'에는 '내몸의 지은죄 뫼ᄀᆞ티 싸혀시니'와 같이 임금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 있고, '내 노래'에는 '장안을 도라보니 풍진이 아득하다'와 '부귀는 부운이오 공명은 와각이라'와 같이 자신이 현실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여 소 치기를 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으므로 '내 ᄉᆞ셜'을 통해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를,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